

독일의 교육제도는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 국민학교(Volksschule)가 4년 과정이고 이 과정이 끝나면 인문학교인 김나지움(Gymnasium)과 직업학교인 레알슐레(Realschule),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로 나뉜다. 인문학교에서는 학문 연구나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기초부터 배우고, 대개 법대, 의대, 상대, 기초과학관련 대학으로 진학한다. 또 직업학교에서는 페인트칠, 자동차 수리, 목공 등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분야의 기초와 실기를 배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인문학교에 진학하는 사람이 21% 내외라는 것이다. 인문학교와 직업학교에 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국민학교 4학년 담임교사에게 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하여 중, 고 2 때 학교를 바꾸는 제도로 보완하고 있다. 직업학교의 학생이 인문학교로 바꿀 때는 한 학년 내려서 손님 학생(Gastschuler)로 간다.

독일의 교육제도가 갖는 특징은 정부가 학생이 어떤 때부터 직업선택과정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으로, 직업에 필요한 학교교육은 중장기적 입장에서 인력수급을 조절한다는 측면이 고려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인문과학 분야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의 인력자원을 조절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직업학



불자 세상보기

황진수
한성대 행정대학원장

21세기 교육 모델

교를 나온 사람도 마이스터(Meister)가 되면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인정되고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의 대학이 전국의 고등학교를 내부적으로 등급제 형식으로 차등화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수시 입학성적에 반영하였다 하여 시끄럽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학들이 음성적으로 등급을 나눔으로써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간 경쟁체제에 돌입해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 선

발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가의 우수인력 수급차원에서 다시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어느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는가이다. 극단적 자본주의적 시각인 소셜다윈리즘(Social Darwinism)적 시각에서 최우수의 두뇌를 선별하고 이를 잘 교육해서 이 나라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적 광풍의 개념에서 모든 학교를 평준화하고 평준화된 지식과 기술의 바탕위

에서 전 국민을 잘 살게 할 것인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도 함정은 있다. 첫 번째의 우수한 두뇌는 만들어진다 또는 부풀려진 내신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는 가설이 그 하나이고, 전 국민의 평준화는 전 국민의 하향평준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가장 많이 벌어진 것이 교육정책이고,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전 국민이 전문가 수준에 와있기 때문에 다들 한 마디 할 수 있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관하여 정부의 관심이 너무 많다.

정부당국의 교육현장에 대한 관심은 일제 식민지 때 총독부에서 학교 간섭하던 때보다 더 심하다 볼 수 있다. 대학 신입생 선별과정, 학과 신설과정, 학과증원과정, 편입생을 뽑는 과정 등에 교육당국이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한다.

이제 국민소득 1만불 시대, OECD에 가입한 나라답게 교육현장은 대학당국에 맡겨줘라. 정부는 중·장기적 인력수급정책에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대학 스스로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21세기의 교육모델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2001년 처음으로 시행된 조계종 3급 승가고시가 올해로 4회를 맞았다. 그동안 승가고시에 합격하여 고시산림을 마치고 중(정)택 법계를 풍서한 스님들은 1000명에 달한다. 처음 승가고시를 시작할 당시의 우려와는 달리 대부분의 스님들이 수회동참하여 고시산림이 원만히 시행되고 있다. 이는 종단의 구성원들은 물론 신도들과 사회 일반에서까지도 종단의 미래에 희망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이라 할 만하다. 승가고시산림이 실시된 이후 통과례제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으나 회를 거듭하면서 평가방법이 강화되고 산림의 체계도 보완되면서 탈락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종단과 고시위원회가 엄격하게 수행질서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증거다. 올해도 지난 번 고시산림을 보완·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가장 주의가 집중되는 고시과목인 조계종의 소의경전 <금강경>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나머지 선택과목을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이번 고시산림에는 새로이 갈마 단계에서 수행평가, 산림평가 등도 평가점수로 되는 것도 눈에 띈다.

3급 승가고시 강화 의미

3급 승가고시의 응시자격은 승남 10년 이상인 비구이다. 이를 통과하면 비구는 중택, 비구니는 정택법계를 풍서하고, 팔사주지와 본사 칠지와 상좌를 둘 수 있는 스승의 자격이 주어진다. 실질적으로 교계 지도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대단한 책임과 엄중한 위의를 갖춰야 함을 의미한다. 당연히 초발심의 굳은 뜻을 되새겨야 한다. 따라서 3급 승가고시는 출가합법의 초발심을 다시 돌이켜 보는 기회도 될 것이다.

고려시대 보조·태고·나옹 등과 조선시대 서산·사명·기허 등 한국불교의 중추를 이루었던 스님들이 모두가 승가고시를 통하여 수행과공을 진작시켰던 역사를 이어가자. 이번 고시산림을 통해 눈 밝은 청룡남자들이 배출되어 불교의 미래를 더욱 빛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아울러 종단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3급 승가고시 뿐만 아니라 4급·5급 승가고시도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하며, 교육 강화를 위한 심도 깊은 연구활동의 지원과 안정적인 시행 방안들이 채택돼야 할 것이다.

■ 법산(동국대 정직원장)

이렇게 들었다 역사 모르는 고교생들

법부들은 소견이 잘못된 까닭에 사건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직 어리석은 짓만을 생각해 무익한 일을 구한다.

〈점수일체지덕경〉

우리나라 고교생 3명 가운데 1명은 '한민족의 첫 국가는 고구려'로 꼽고, 4명 중 1명은 '한국어 사용된 문자는 한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기홍 의원(원천우리당)이 전국 고교생 1052명과 재일교포 고교생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확인된 결과다.

고구려사와 발해사에 대한 이해도도 극히 낮게 나타났다. 173명(16.4%)은 9세기에 고구려에 버금가는 영토와 문화를 이룬 '해동성국' 발해를 당나라의 속국으로 답했고, 15.1%(159명)은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잘 모른다'거나 '확실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재일교포 고교생들의 한국어에 대한 왜곡된 이해도 단적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2명은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10명 가운데 3명은 동해의 영어 표기가 'Sea of Japan(일본해)'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이 결과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을만하다. 충격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것마저 개인의 선택에 맡겨버리는 무책임한 교육풍토에서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렇듯 고사야 어찌 우리 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역사는 흔히 '뿌리'로 통한다. 오늘날의 바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자명하다. 역사의 소중함을 깨달아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 될 일이다.

■ 박봉영(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창간 10주년을 축하하며

'현대불교'를 구독한 지는 9개월여에 불과하지만, 조계종 기관지라 할 BK신문과 또 다른 BB신문 등과 비교해보니 현대불교신문의 참신성과 발랄함이 거의 독보적으로 느껴진다. 특히 생활불교, 실천불교, 현장불교, 젊은불교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불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한 활발한 포교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다른 신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활발한 의견 개진이 거의 없거나 극히 소수에 불과한 반면, '현대불교'의 홈페이지는 그야말로 온라인 법석이 시끄러운 것을 보면서 살아있는 불교 언론매체가 있음을 확신하게 됐다. 그동안 타종교에 비해 대중매체에서 너무 뒤지고 있다는 불만이 항상 뇌리를 감싸고 있었던 중 뿌듯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붓다뉴스〉를 보면, 기사란을 비롯해 '단소리 촌소리' '자유게시판' '이 기사는 논쟁중' 그리고 '기자 커뮤니티'를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기자 커뮤니티에는 총 4천여건의 글이 올라 온갖 온라인 법석을 펴고 있는 것 같은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는 하나의 글의 클릭수를 150여회로 잡아도 62만명의 방문자가 거쳤다는 추리가 가능해 엄청난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붓다뉴스〉의 이렇게 활발한 모습은 정제

되고 침체된 불교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바꾸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한가지만을 놓고 보더라도 '현대불교' 창간 10주년이 가져다 준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현대불교'가 한국불교의 오랜 과제인 어린이, 중·고교생, 대학생 등 젊은 불자 양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한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한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특히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병폐를 과감히 들춰내어 보다 투명한 구조를 갖추 수 있도록 '현대불교'가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

도원(붓다뉴스)

"불필요한 것 많이도 지냈구나"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신을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입산 때의 무거운 짐은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 고 산을 내려왔다.

처음 일주문을 들어서면서 속제가 풀 어질 수 있는지 반신반의하면서도 이 문을 다시 넘을 때는 무거운 짐이나마 풀 수 있을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가졌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과연 지금 이 일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과 결과를 지레짐작하기도 했다. 특히 담담스님들의 어색한 진행과 피교육자들의 의사가 무시되는 환경에서 여

러 것도 얻을 수 없을 듯했다.

몇 번의 환속(?) 고비를 넘기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절박감과 주변 분들의 애정 덕분에 마지막 과정까지 마칠 수 있었다.

돌이켜 보면, 가장 큰 공부는 대중생활과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 감정이었다. 각기 다른 남행자 26명, 여행자 26명이 사회의 습관대로 목소리를 내니, 웃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정들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것을 참 많이 지니고 있었음을 알았다.

불필요한 생각,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행동들. 멈추어야 한다 하면서도 막상 왜 그리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말하기 전에 대신 못했는지...

단순한 생활 속에서 단순한 나를 만드는 것도 공부였다. 지난 세월의 간판들이 눈멀게 했고 목소리만 높이는 모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잔잔함은 평온함을 주었다. 이 평온함은 고개를 숙이게 했다. 바른 일 상에서 잃었던 내면의 즐거움을 주었다. 모난 언행으로 조심스럽게 살아도 힘든 세상을 만들었던 내 자신을 돌아봤다. 모난 것을 갈아 등글게 살아야 한다는 것, 하루를 살건 백년을 살건 즐겁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았다. 한 스님은 이것을 탁마(琢磨)라 했다.

새삼 '부처님 가르침이 귀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준 원정사에 감사 드린다.

우성(명칭 월정사 단기출가자)

'연대' 민명 심민섭



간판은 아주 큼니다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인력을 잘 적응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경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책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책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기라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단계를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1334-9490, 334-9491 | 아간 : 0311706-3060

禪 카이로프랙틱, 제3기 교육생 모집

1. 설립취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구제와 더불어, 주며 베푸는 따뜻한 스님을 양성키 위해 실천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유능한 카이로프랙터로서의 정통교육에 힘쓰고자 설립함.

2. 교과목:

- 1) 카이로프랙틱(허리, 어깨, 골반, 경추등 척추교정술) 이론 및 실기
- 2) 해부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 3) 경락, 스포츠 마사지

* 미국 필머대학의 교재로 확실히 강의함

3. 교육기간:

- 1) 2급과정 2개월(총 108시간)
- 2) 1급과정 1개월(총 54시간)

4. 지원자격:

학력 경력 제한없음

5. 입학일시:

2004년 11월 11일(목) 13:00

6. 원서교부 및 접수:

본원 교학과 042)635-8186, 818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1-14 호산빌딩 내

본 원에서 1, 2기생을 모집, 교육을 하면서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신 스님과 불자들의 열성적인 반응 때문이기도 했고, 각자의 절절한 사정들을 접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다스의 애로는 있지만... 미력하나마, 본 연수원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하고 誠心誠意를 다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